
시민사회단체 기록의 생산방식 변화와 몇 가지 제언

-인권운동 기록을 중심으로-

Some Suggestions for Changes in the NGO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이훈창 (Lee Hoonchang)(제1저자) | 인권아카이브 활동가 | resistant83@gmail.com

정진임 (Jung Jinim)(공동저자)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zinim@opengirok.or.kr

문찬일 (Moon Chanil)(교신저자) |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 chanil1021@gmail.com

목 차

1. 머리말
 2.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현황
 3. 인권운동 사례로 본 시민사회단체 기록의
 4. 모바일 메신저와 새로운 업무 플랫폼 기록의 수집 문제
 5.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는 시민사회단체 현장을 사례로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기록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 글은 우선 시민사회단체 기록화 작업과 유형별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인권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의 활동 방식과 시기별 기록의 생산 및 공유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사회단체 기록 생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기록 생산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화형 메신저의 선별과 수집, 생산자와 배포자의 차이에 의한 저작권 문제, 휘발하는 대화방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등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 키워드 :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메신저기록, 인권운동 기록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hrough the cas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irst of all,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urrent state of the archiv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Korea through the recording 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ome examples of archiv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we looked at the activities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method of producing and sharing records by period, and the changes in the recor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re also examined. Finally, several opinions were presented on the selection and collection of interactive messenger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nvironment for producing recor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pyright issues due to differences between producers and distributors, and the emergence of volatile chat rooms and new platforms.

* Keywords :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cord Manage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 Archive, Messenger Record, Human Rights Movement Record

• 논문접수일 : 2021년 02월 25일 • 최초심사일 : 2021년 0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03월 19일

1. 머리말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 등을 대상으로 사회개혁 관련 사건과 의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정책 결정권이나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압박하거나 설득해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제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활동 등을 주되게 하는 단체를 지칭한다(박근용, 2016). 조희연(조희연 외, 2000)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공적 이해 실현을 지향하기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행동으로 특정한 사회개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행동적’ 단체이다. 여기에는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단체’와 1987년 이후 민중운동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운동을 하는 ‘시민운동단체’가 포함된다.¹⁾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등을 수행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오현순, 2019) 다양한 단체가 자율성을 유지하며 활동 할수록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는 국가의 중요한 한 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단체 기록에 대한 논의와 활동은 ‘아카이브가 정부, 기업, 군대와 같은 부유하고 권력을 지닌 이들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미국 역사가 하워드 진(Howard Zinn)의 1970년대 비판 앞에서 정부 기록에 비해 부족한게 사실이며 이는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아키비스트²⁾들에게 반성과 관심을 요구한다.

이 글은 우선 시민사회단체 기록화 작업과 유형별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인권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의 활동 방식과 시기별 기록의 생산 및 공유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사회단체 기록 생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기록 생산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화형 메신저의 선별과 수집, 생산자와 배포자의 차이에 의한 저작권 문제, 휘발하는 대화방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등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현황

2.1 시민사회단체 기록화 작업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한 민중운동과 변혁운동을 중심으로

1) 다른 유형으로는 1. 공적 이해 실현을 지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나 결핍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원봉사, 사회복지, 구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적’ 단체, 2. 특정 집단의 이해 실현을 위한 단체로 통상 ‘이익단체’로 불리는 단체, 3.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는 관계없이 특정 관심에 따라 동호회, 취미클럽 등과 같은 단체를 구성하는 ‘친교공동체적’ 단체가 있다.

2) 보존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나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에 책임을 지는 사람.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고양: 역사비평사.

성장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소위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반독재, 반정부 민중운동 중심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변화한 것이다. 운동의 영역도 권력감시, 여성, 환경, 인권, 국제연대, 장애, 풀뿌리 등으로 다양해졌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시민단체들³⁾ 역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작은 조직 규모(김소연 외, 2018)⁴⁾ 와 활동가 개개인 중심의 업무방식 등으로 인해 단체 차원에서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운동 방식으로서의 아카이브 역시 관리운영의 문턱이 높았다. 하지만 비영리 영역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 점, 인터넷환경 및 기술의 변화로 온라인아카이브 방식이 다양해진 점, 시민운동이 20년을 넘어가며 단체 및 운동의 기록 정리가 필요하게 된 점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들어서는 아름다운재단, 인권재단사람, 재단법인순과나눔, 다음세대재단, 서울시NPO지원센터와 같은 공익활동지원조직에서는 시민사회운동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점차 시민사회단체나 사회운동 아카이브가 생겨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기록의 진본성과 맥락을 유지하여 활용하게 하는 것을 아카이브라고 정의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특정의 정보를 모으는 행위나 모아둔 곳을 통틀어 아카이브라고 칭하곤 한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특정 사안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행위와 장소를 아카이빙이나 아카이브라고 부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명명은 기록학 개념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아카이브 지형 및 문화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일정의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영역에서 역시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가 존재한다. 조직과 전담활동가를 둔 아카이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⁵⁾ 개별 단체의 활동을 기록한 곳도 있고 사회적 이슈나 의제를 다루는 아카이브도 있다. 각 단체에서 생산한 기록이 주를 이루는 아카이브, 의제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을 수집해 공유하는 아카이브도 있다. 아카이브 작업의 발화 방식도 다양하다. 서고와 전시실 등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별도의 온라인아카이브를 구축하기도 한다.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로 기록을 공유하는 곳도 있다. 백서나 보고서 발간, 도서 출판은 시민사회단체에게 익숙한 방식의 기록작업이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카이브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의제운동의 기록화 성격이 강하다. 기록 작업의 궁극적 목적이 단체가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운동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기록작업의 전 과정 중에서도 수집과 보존은 중요한 과제였다.⁶⁾

최근에는 수집 및 활용 뿐 아니라 기록의 생산과 기술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의 활동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당대의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역시 운동의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보

3) 경실련(1989), 참여연대(1994), 환경운동연합(1993), 여성단체연합(1987), 인권운동사랑방(1993)

4)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많은 서울 소재의 시민사회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회원 200명 이하가 응답자의 50.5%, 연간예산 1억 이하가 45.6%, 상근활동가 수 5인 이하가 6.1.2%다.

5) 정의기억연대의 경우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기록관리 활동가를 채용하며 공고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사항으로 두었다.

6) 한국사회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9년 10월에 오픈한 '한국퀴어아카이브 : 퀴어락'은 아카이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록물 수집과 기증, 관리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카이브 오픈 직후 이 정책을 발표했다.

존기록 뿐만 아니라 현용기록 활용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확장되었다.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면서 조직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졌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민주적 조직문화와 지속가능한 조직운영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면서 연대 및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공백 문제도 드러났다. 기존에 기록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던 단체들 역시 다양한 업무도구의 등장과 활동매체 다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록관리전략이 필요해졌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활발한 방식인 네트워크, 협업, 연대 활동의 경우 주로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의사결정과 정보공유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기록관리 방식으로는 등록 및 편철 등 처리하기 어렵다.

2.2 유형별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2.2.1 정보 큐레이션 아카이브

시민사회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아카이브는 서울시특별NPO지원센터의 아카이브⁷⁾일 것이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사회혁신, 공익활동,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 및 경향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보아카이브’로 공유한다. 이 밖에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낸 사회변화를 정리하는 ‘공익활동 변화사례 아카이브’ 콘텐츠도 만들어 제공한다. 변화사례 아카이브는 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캠페인을 통해 시민에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는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의 활동과 미래의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다보니 아카이브는 아카이빙보다는 큐레이션 콘텐츠에 더 가까운 형태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기억, 정리, 공유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생겨나며 내부적으로는 시민운동의 기록의 정리 및 활용, 당대 운동의 기록화에 대한 과제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2020년 말, 인천시민재단과 강희철재단은 ‘인천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⁸⁾를 만들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지역 시민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자료목록집인 이 아카이브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 개인과 단체를 통해 시민단체의 주요문서와 자료집 등을 목록화 하였다. 인천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는 책자의 형태로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고 기록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흩어져있던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20년 동안의 기록들에 대한 목록작업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7)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는 별도의 명칭은 없으며,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8) ‘인천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는 pdf 형태의 파일이며, 인천시민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2.2 단체 아카이브

시민사회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되면서 활동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만든 ‘경실련아카이브’⁹⁾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만든 ‘여성인권운동아카이브 : 문’이다.

1983년에 창립한 한국여성의전화는 활동 34년차인 2016년에 여성인권운동아카이브를 오픈했다. 단체의 기록이 곧 해당 운동의 기록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의 특성을 여기서 고스란히 볼 수 있다. 기록 유형별, 단체 업무별, 여성운동 주제별로 분류한 ‘여성인권아카이브 문’은 한국 여성운동의 자료를 모은 박물관을 자칭하고 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한 곳으로 2019년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카이브를 오픈했다. 경실련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형태별, 출처별, 시대별, 주제별로 분류한 이 아카이브는 경실련의 활동 뿐 아니라 재벌견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부패 개혁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함께 이룬 사회변화를 위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밖에 단체의 미션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행동권카라의 ‘카라아카이브’가 그 예다. 2019년 오픈한 ‘카라아카이브’는 2002년 전신단체인 아름답 시절부터 동물행동권카라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다. 카라아카이브가 경실련, 여성의전화와 다른 점은 단체운동의 미션강화만이 아닌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아카이브의 중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는 동물권에 대한 관심만큼 높아진 동물단체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에 대한 요구를 아카이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2.3 주제 아카이브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단체의 미션 실현과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 방법 중 하나로의 아카이브다. 여성, 환경, 자원봉사, 인권 등 다양한 주제와 세월호참사, 4대강개발사업, 제주강정구럼비폭파, 원자력발전소와 밀양송전탑 건설, 1997외환위기, 일본군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등 주요 사건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아카이빙 되었다.

활동 주제 아카이브의 주요 사례로는 인권아카이브가 있다. 인권연구소 창에서 운영하는 ‘인권아카이브’는 2017년에 오픈해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인권운동 단체, 네트워크의 기록을 수집, 정리, 공유하고 있다. 인권아카이브는 운영주체가 인권연구소 창인것과 별개로 “여러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아카이브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이슈 기록들을 모으고 정리하기 위해 인권운동 전체가 아카이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 창과 같은 개별단체의 생산기록 뿐 아니라 인권단체연석회의, 416인

권선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수많은 단체 및 활동가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생산한 활동기록까지 아카이빙하고 있다. 인권아카이브는 특정시기의 기록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현장의 기록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 개인정보 처리와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 등 아카이브 운영상에서도 인권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활동 이슈 아카이브의 사례로는 2019년에 오픈한 ‘1997외환위기아카이브’를 들 수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이 아카이브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인 1997년 외환위기를 기록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IMF, 민간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기록을 모은 아카이브다. 당시 구제금융 협상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관련 당사자 별로, 사회 이슈별로 분류한 이 아카이브는 하나의 이슈를 다양한 맥락과 출처로 재구조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인권운동 사례로 본 시민사회단체 기록의 생산방식 변화

3.1. 인권운동의 활동 방식과 기록

“인권운동은 인권단체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개입하는 모든 움직임을 지칭하는 넓은 뜻을 갖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인권운동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사람을 ‘인권옹호자’라 부르며 이들은 특정한 인권단체 혹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권운동의 기록은 인권옹호자의 활동에서 생산하는 각종 문서, 사진, 영상 등을 말한다. 이 기록에는 내부 업무 기록, 언론 홍보 등 바깥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공존한다.

인권운동 기록이 인권옹호자의 기록인 이유를 살피기 위해선 인권운동의 활동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단체, 개인, 당사자들이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한다. 가령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네트워크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는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네트워크에서 함께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속한 단체와 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한다. 또한 이 활동에는 소속단체 활동가 뿐 아니라 소속 되지 않은 개인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이는 특정한 네트워크에서만 보이는 형태가 아니다.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참사,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인권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에서 인권옹호자들은 즉각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이 네트워크는 인권단체 활동가, 피해당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띄고 한시적으로 활동한 후 해산한다. 그렇기에 인권운동 기록은 인권단체와 그 소속 활동가가 아닌 인권옹호자가 생산하는 기록이다.

3.2. 인권운동 기록의 생산·관리와 공유 방식의 변화

인권운동은 1990년대 각 단체별로 수기와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록을 생산하고 이를 인쇄하여 보존하였다. 또한 특정 활동이나 업무 관련 기록을 모아 백서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기록은 HWP 파일로 생산 후 인쇄되어 보존되었으며 일부 기록은 수기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인권운동은 인권기록을 PC통신과 팩스 등을 활용하여 단체, 언론, 일반시민들에게 공유하였다. 1993년 9월 7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한 <인권하루소식>은 매일 발생한 인권관련 소식을 팩스로 사회단체 및 언론, 일반 시민에게 발송하였다. 1994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주간 인권신문 <평화와 인권>을 팩스로 발행하였고 2000년에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주간 <다산인권>을 발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은 팩스와 PC통신을 통해 전파되었고 이를 묶은 백서와 단행본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성명서, 보고서, 자료집 등의 인쇄물을 생산하였고 각 단체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업무 기록은 인쇄되어 보존되었다. 이 시기 인권운동 기록은 인권 단체들이 생산의 주요 주체였다.

2000년대 웹 환경의 변화는 인권운동 기록의 생산과 관리, 공유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권단체들은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들을 내부 게시판 등 웹페이지에 올리기 시작 하였고 각 단체와 네트워크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신들의 기록을 올렸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개인 이메일을 활용하여 기록을 생산하고 공유했고 진보네트워크의 ‘진보블로그’에는 다양한 인권옹호자들의 블로그가 개설되었다.

이 시기 인권운동 기록 공유 방식의 가장 큰 변화는 메일링 서비스였다. 인권운동은 2003년 열린 전국인권활동가 대회 이후 인권옹호자들의 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의 인권운동 네트워크들도 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이곳을 통해 인권단체, 인권옹호자들은 기록과 현장소식, 고민들을 공유하였다. 메일링 서비스가 활용되며 인권운동 기록의 주체는 인권단체에서 인권옹호자들로 점차 이동하였다.

2010년대 인권운동 기록의 생산과 관리, 공유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는 전 시대가 최소한 PC를 통해 기록의 생산이 이루어진 점과 매우 확연한 차이이다. PC를 거치지 않고 기록이 생산되고 이에 대한 공유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설계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시스템이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SNS이다.

인권운동 기록의 생산과 관리, 기록 공유 방식의 변화는 인권운동 기록의 수집 방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PC와 메일링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된 수집 계획은 변화한 환경을 따라갈 수 없고 이에 인권운동 기록을 수집·보존하던 인권아카이브는 새로운 기록 수집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2020년 기록 수집을 중단하였다. 이는 모바일 메신저 기록 공유가 기존의 공유방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을 통해 살펴보겠다.

3.3. 모바일 메신저와 메일링 서비스 활용의 차이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한 기록의 생산과 공유는 메일링 서비스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메일링 서비스는 하나의 메일이 보통 하나의 기록물 건이다. 이 기록은 제목, 생산처 혹은 생산자, 내용, 배포일시, 배포대상, 첨부파일 등의 하나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록활동가는 가공하지 않고 각 메일들을 확인하고 수집한다. 첨부파일이 존재할 시 첨부파일을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사진, 동영상의 경우 생산자가 가능한 용량 내에서 편집하여 보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바일 메신저는 메일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대화형 메시지에 제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대화가 하나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대화가 연결되기도 한다. “어디에 있나요?” “회의는 언제 할까요?” “저도 참여요.”와 같은 대화와 성명서, 자료집, 링크, 뉴스 등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글의 작성자와 배포자가 다르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용량의 제한이 없기에 사진, 동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공유한다. 파일을 첨부하기 보단 메시지 창에 직접 입력하고 링크로 올리기도 한다. 또한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은 얼마나 많은 대화방이 존재하는지 그 누구도 파악할 수 없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이메일과 모바일메신저의 기록 속성 차이

	메일링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배포주체	개인, 단체	개인
의사공유 방식	1대1, 1대 다수, 다수 대 다수	1대1, 1대 다수, 다수 대 다수
배포 양식	완결성을 가진 1개의 메일	대화형 메시지
작성 속도	느림(형식을 갖추는 시간)	빠름
개설 방법, 관리자 유무	관리자가 특정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개설하고 개인, 단체 메일 정보를 입력하여 구축	개인이 초대하여 개설
기타	의사 전달이 중심	논의 중심
특징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기 어려움. 단문보다 장문으로 작성. 첨부파일의 경우 용량 제한으로 가공하거나 제한적으로 공유	게시글, 링크, 사진 등 소셜네트워크 성격의 글 게재, 파일 첨부 보단 대화창에 직접 작성, 용량의 제한 없음. 공식 대화와 사적 대화가 함께 존재.
주요 사용 환경	PC	스마트폰

4. 모바일 메신저와 새로운 업무 플랫폼 기록의 수집 문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메일링 서비스와 같이 완결성을 지닌 기록은 존재한다. 성명서, 자료집, 보고서와 같은 시민사회운동의 전통적 기록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유된다. 이 기록이 하나의 전자파일이 아닌 대화형 메시지에 작성되거나 모바일 메신저에 링크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방식의 차이일 뿐 기록활동가의 큰 개입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새로운 업무 플랫폼의 등장에서 나타난 변수들은 시민사회운동의 기록 수집에 기록활동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대화형 메시지 선별·수집의 물리적 시간 증가

시민사회운동의 업무를 위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은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수 백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메신저 창에 내용을 입력한다. 이 메시지는 짧게는 이코티콘만이 있기도 하고 길게는 A4로 2~3장의 분량의 글이기도 하다. 또한 사진, 파일 등을 올리거나 링크를 작성하기도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간의 대화와 내용 공유에서부터 단체 혹은 네트워크에서 생산하는 성명서, 보고서까지 폭 넓게 존재한다. 동시간대에 한 대화방에서 상이한 내용의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논의를 위한 대화와 홍보를 위한 대화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몇 명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 논의와 무관한 인권옹호자의 다른 주제에 대한 메시지가 존재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앞선 주제에 대한 글이 써지기도 한다.

이는 기록을 선별하기에 앞서 하나의 완성된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에 기록활동가가 개입해야 하는 지 고민하게 한다. 대화방의 단일 메시지는 하나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개의 메시지가 모여 완결성을 갖기도 한다. 시간 순서로 이를 하나로 묶더라도 중간에 다른 성격의 글이 개입되거나 사적 대화가 섞이기도 한다. 결국 하나의 완결성을 가진 기록을 생산하기 위해 기록활동가가 이를 편집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록활동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록이 생산되고 기록활동가가 이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지 물음을 갖게 한다. 또한 이 기록의 생산자와 생산일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기록활동가의 기록 생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남는다. 하나의 대화방이 종료되지 않는 한 그 방에서는 계속 글이 써지기 때문에 한개의 대화방 전체 대화를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바일 메신저는 빠르게 작성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대화방을 만들 수 있다. 기록이 생산되는 대화방은 메일링 서비스에 비해 늘어났고 검토해야 할 기록의 양도 마찬가지로이다. 대화방은 조금만 확인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몇 십 개에서 수 백 개의 메시지로 가득 찬다. 이는 기록활동가가 기록을 확인 하는데 투입해야 할 물리적 시간을 증가시킨다. 또한 몇 백 개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각기 다른 대화방의 동일

한 메시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은 점점 늘어난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놓친 기록이 있는지 검토할 과정도 필요로 한다. 이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물리적 조건에서 기록활동가가 느끼는 한계와 피로감으로 이어진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 기록 생산 과정에 기록활동가가 개입할 경우 더욱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한계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운동의 기록 보존에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 시민사회운동 기록 수집에 많은 자본과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는 현실 조건에서 불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저임금과 고노동의 환경에서 운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동가들과 신뢰를 갖고 기록 수집을 진행할 기록활동가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4.2. 생산처·생산자와 배포자의 차이, 저작권 문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은 SNS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SNS에서 글을 공유하듯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공유할 수 있다. 생산처·생산자와 글의 배포자가 다른 경우가 점차 늘어난다. 특정 단체나 어떤 개인이 작성한 글인지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포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고 복사하여 붙일 경우 이 글이 원문인지, 변형된 형태인지, 생산자의 허락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생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글이더라도 외부에 기고한 글의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이 기고지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우리가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을 활용하는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이 사용자라면 단톡방에 각종 링크와 퍼온 글과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운동의 대화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선 기록의 배포자와 생산자가 동일한가에 대한 기록활동가의 감이 필요하다.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 글을 작성할 때 이 글이 다른 사람의 글인지, 본인의 글인지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록활동가는 이에 대한 변별력을 갖춰야 하고 대화방 참여자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배포자와 생산자가 다르고 배포자가 대화방 외부의 사람일 경우 이를 수집해도 되는 가는 의문이다. 생산자와 기록관이 서로 간에 일정한 신뢰를 갖지 않을 경우 기록수집에 대한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긴 어렵다. 하지만 개인의 기록이 아닌 시민사회운동이 가진 공공적 성격에서 모든 기록에 대해 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하는지 질문이 남는다.

4.3. 휘발되는 대화방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은 필요한 몇 명의 사람을 초대하거나, 온라인 캠페인 진행시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대화방이 목적 달성 후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안을 다루는 방으로 바뀌기도 한다.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특정 네트워크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달리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은 기록활동가가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기록 수집이 불가능하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선 기록활동가는 시민사회 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정 대화방 기록 수집을 기획해야한다. 이 속도는 일반적인 기록 수집에 대한 기획이 가진 속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많은 시민사회영역에 기록활동가가 존재한다면 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운동 기록을 수집하는 곳은 많지 않으며 특정 활동 기록을 수집할 것인지는 이를 진행하는 활동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진다.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한 업무 플랫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한다. 시민사회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세미나가 열린다. 잔디, 노선과 같은 업무용 협업툴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홈페이지 보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활동가와 시민들 또한 SNS를 통해 사회운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 수집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새로운 플랫폼들은 기술적으로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온라인 회의 플랫폼, 업무용 협업툴 서비스, SNS는 자체적으로 기초적인 아카이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활용할 경우 전체 기록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은 기초적인 논의 단계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플랫폼 기록관리를 위해선 활동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이자 기록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단체에서 단체의 활동가들이 생산하는 기록을 관리해보려 했으나 자본, 시간, 방법 등의 어려움에 놓여 실패해왔다. 개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바람만으로 기록관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시민사회운동이 특정한 플랫폼만을 활용하여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도 없다. 결국 현 시기 시민사회운동 기록을 수집하는 기록관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활동가들과의 정보 공유, 모니터링을 통해 기록 생산단계에서 이를 보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4.4. 시민사회단체 기록의 생산방식 변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대화형 메시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관리 방법에 대하여 국내에 연구되거나 소개된 사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화형 메시지와 소셜미디어의 수집은 해당 서비스가 운영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기능과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보안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텔레그램’의 경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PC와 웹, 모바일에서 생산한 메시지와 함께 이미지, 동영상, 문서파일들이 동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룹’(대화방)의 구성원 중에 단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쉽게 휘발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기록활동가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대화방을 선별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텔레그램은 현재 ‘폴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폴더 기능은 ‘슬랙’의 기능과 유사한데 이 기능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록활동가는 대화방의 주제, 활동, 사건 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대화방을 분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단체 내부 또는 연대체 간에 논의를 통해서 2개 이상의 대화방을 생성하여 주제, 활동, 사안 등으로 나누어 대화방을 운영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대화방 참여자가 폴더를 구분하여야 원활한 대화방 메시지 분류가 가능한 것은 한계점이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메시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장이 필요한 메시지를 별도의 대화방에 모아둘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선별이 필요한 메시지, 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을 별도로 저장하고 백업까지 가능하며, 저장한 메시지의 링크를 따라 해당 대화방의 메시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기록활동가는 자신의 계정으로 선별한 메시지들을 그때그때 선별하여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개의 계정 당 하나만 저장된 메시지 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텔레그램은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대화방의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백업 기능은 대화방의 특정 시기 메시지를 지정하여 사진, 동영상 파일, 음성 메시지, 동영상 메시지, 스티커, GI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HTML 포맷으로 변환하여 백업이 가능하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주간, 월간, 분기,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거나, 대화방이 종료될 경우에 백업을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기록활동가가 선별한 ‘메시지 저장’ 기능까지도 백업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별도의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설정에서 ‘내 정보 다운로드’, 인스타그램은 설정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를 통해 백업이 가능하다. 한계는 계정 소유자가 생산한 게시글만 가능하며 계정 소유자 이외의 사람들과 소통한 댓글은 저작권의 이유로 백업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카이브처럼 소셜미디어의 전문적인 보존도 가능하나, 이는 아카이빙 업체에 비용을 지불한 사례라 시민사회단체의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대화형 메시지와 소셜미디어는 기록의 관리나 보존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대화형 메시지와 소셜미디어의 개별 내용의 선별과 수집보다는 대화방과 계정의 활동, 주제에 초점을 둔 기록활동가의 선별·수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롭게 생성되는 대화방과 계정을 꾸준히 조사하고 운영 중인 대화방과 계정이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화방의 구성원과 계정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은 대화방과 계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는 것이다.

대화방의 사적대화화 및 개인정보 및 저작권 문제는 대화방 메시지의 사전 생산 통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기록활동가가 대화방 구성원인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대화방의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기준, 그리고 기록활동가의 대화형 메시지의 생산 통제와 편집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대화방 운영 지침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소규모부터 규모가 큰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운동’이 주목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조직 내부에서 별도의 시간, 인력, 비용을 투여하여 전문적 기록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시민사회단체 간 협업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록운동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기록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진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단체들이 각자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소규모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아카이브를 위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협업을 통해서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 및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시킬 수 있다. 또한 개별 단체들의 운영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별 단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아카이브의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할 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5. 맺음말

이상 인권운동 기록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기록의 생산방식 변화와 수집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과거 인권운동 기록 수집의 방향이 인권단체, 네트워크의 생산 기록이었다면 현재 인권운동 기록 수집의 방향은 생산·배포주체가 아닌 인권운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기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 문서를 중심으로 한 기록의 생산 방식에서 공유와 소통의 방식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것은 메일링에서 대화형 메시지로, 홈페이지에서 소셜미디어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인권단체, 아니 시민사회단체 기록 생산 방식의 변화이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의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은 기록활동가가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만약 개입할 경우 원본이 아닌 이 기록을 어떠한 성격으로 봐야할지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개입과정에서 기록활동

가의 자의적 판단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과제가 남는다. 또한 대화형 메시지나 소셜미디어에 관한 기록관리 방법론이 매우 부족한 만큼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이다. 이는 아키비스트 집단의 한계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가야할 책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 기록의 수집을 위해서는 국내의 활동가들과 기록 수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운동 기록을 수집 보존하는 기록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간의 깊은 신뢰를 만들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운동’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철재단 (2020). 인천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1990-2020년). 인천: 인천시민재단.
- 경실련아카이브(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 검색일자: 2021. 02. 13.
<http://archives.ccej.or.kr/archive/ArchiveMain.do>
- 김소연·조철민·이강준·오현순·옥미애·김문주 (2018),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NPO지원센터·서울연구원.
- 동물행동권카라 카라아카이브(KARA ARCHIVE). 검색일자: 2021. 02. 13.
<https://archive.ekara.org/>
- 국가인권위원회 (2019).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인권운동사 4.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근용 (2016).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정국과 시민사회단체 역할에 관한 단상. 시민과 세계, 29, 201-213.
서울시NPO지원센터. 검색일자: 2021. 02. 1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
- 아카이브소셜(ArchiveSocial). 검색일자: 2021. 02. 13. <https://archivesocial.com>
- 오현순 (2019),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2019 강 한시민사회포럼.
- 인권아카이브. 검색일자: 2021. 02. 13.
<http://www.hrarchive.or.kr/>
- 인천시민재단. 검색일자: 2021. 02. 13.
http://www.incheoncf.org/xs/board_AJDU80/2530
- 정의기억연대(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검색일자: 2021. 02. 13.
<https://womenandwar.net/kr/notice/?uid=1274&mod=document&pageid=1>
- 조희연, 주성수, 김동춘, 정태석, 김수현, 차명제 (2000). NG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997외환위기가카이브. 검색일자: 2021. 02. 13.
<https://97imf.kr/>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고양: 역사비평사.
- 한국여성성의전화 여성인권아카이브 (ARCHIVE MOON). 검색일자: 2021. 02. 13.
<http://herstory.xyz/>
-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Korea Queer Archive). 검색일자: 2021. 02. 13.
<https://queerarchive.org/simple-pages/page/policy>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rchives of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97imf.kr/>

ArchiveSocial.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archivesocial.com>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CCEJ) Archives.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archives.ccej.or.kr/archive/ArchiveMain.do>

Human Rights Movement Archives.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www.hrarchive.or.kr/>

Incheon Civil Foundation,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www.incheoncf.org/xe/board_AJDU80/2530

Jo, Hee-Yeon, Joo, Sung-Soo, Kim, Dong-Choon, Jeong, Tae-Seok, Kim, Soo-Hyun & Cha, Myong-Jae (2000). What is an NGO. Seoul: Arche.

KANGHEECHUL Foundation (2020) Incheon NGO Archives(1990-2020). Incheon: Incheon Civil Foundation.

KARA Archives.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archive.ekara.org/>

Kim, So-Yeun, Cho, Chul-Min, Lee, Kang-Jun, Oh, Hyun-Soon, OK, Mee-Ae & Kim, Moon-Ju (2018). Policy Suggestions on the Strengthening Seoul Civil Society: Focusing on the Evaluation and Demand of the Civil Society Field. Seoul: Seoul NPO Center & Seoul Institute.

Korea Queer Archiv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queerarchive.org/simple-pages/page/policy>

Korea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Goyang: Yuksabipyongsa.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omenandwar.net/kr/notice/?uid=1274&mod=document&pageid=1>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2019).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Human Rights in Korea: Overview of the history of human rights movement 4. Seoul: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Oh, Hyun-Soon (2019). The Role and Activation Strategy of Civil Society: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Revitalize Civil Society. 2019 Strong Civil Society

Forum.

Park, Kun-Yong (2016). A Fragmentary Thought on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resident Park Geun-Hye & Choi Soon-sil Gate Political Situation. *Citizen&the World*, 29, 201-213.

Seoul NPO Center. Retrieved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

Women's Rights Movement Archives "MOON".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herstory.xyz/>